

2020 겨울

제213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시로 사랑하여라



해외 선교 사제

10개 국가 22명

독일

신정훈 미카엘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P.08)

일본

김윤복 모세 (P.14)

이종안 사도요한

김태근 베드로

신광수 베드로

박민우 알베르토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김성천 스테파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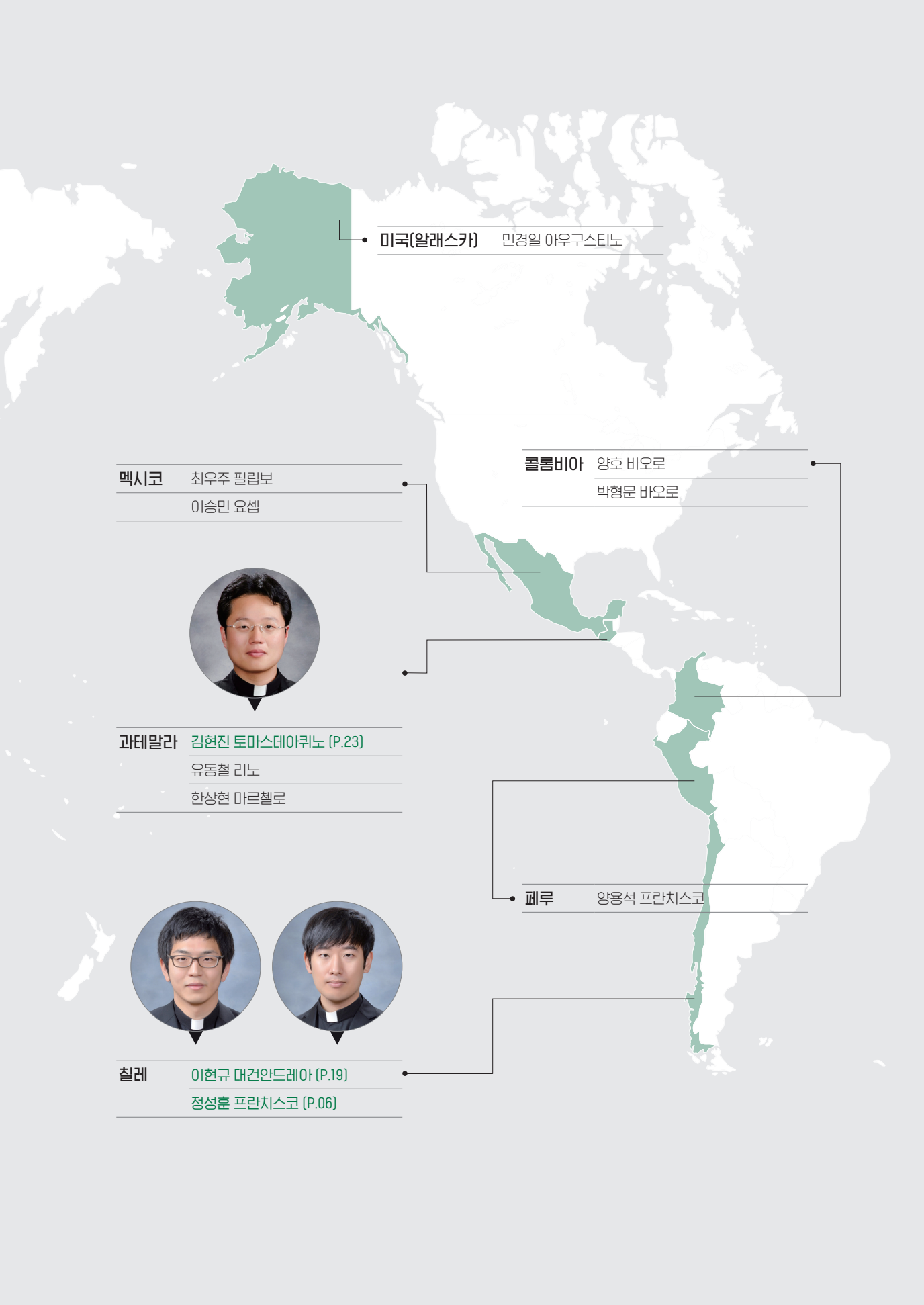
김재원 베드로사벨



겨울호 특집

1. 우.정.사업 우리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해외선교사업 | 칠레 정성훈 신부님

2.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일본 김윤복 신부님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멕시코 최우주 필립보
이승민 요셉

콜롬비아 양호 바오로
박형문 바오로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P.23)
유통철 리노
한상현 마르첼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P.19)
정성훈 프란치스코 (P.06)



주님의 형제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사랑하기를
결심하였기에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해외선교봉사국장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큰 도전이었고, 교회에도 그에 못지않은 큰 상처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셨고, 기다림을 명하신 듯합니다. 현장에서 선교 중인 신부님들은 마음이 간절하나 신자를 만날 수 없었고, 때로는 코로나19로 죽어가는 교우들을 옆에서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부님들께



서는 직접 빵 봉지를 들고 신자들을 방문하셨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심는 이가 되어 어둠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섯 분의 사제들이 기꺼이 선교지를 향해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사랑하기를 결심하였기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로서 굳건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교구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 시절, 조선 땅에 밭을 디디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았지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외방 선교 사제들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세상 끝까지 사랑으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신부님께서 선교 대열에 동참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제들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성탄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성탄 선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영접하며, 우리 또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움츠림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청해봅니다.

마라나타(주님 어서 오소서)! 아멘.



우.정.사업

우리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해외선교사업

선교지 칠레에서는 지금...

정성훈 프란치스코 신부
칠레 산티아고 대교구

지난 3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칠레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당 모임과 미사는 금지되었고, 식자재와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과 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당장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저희 구역은 지역 특성상 일자리를 찾아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칠레로 온 가족 단위의 이민자들이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이런 소외된 지역의 이민자들이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신자 분께서 본당 인터넷 모임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제안하였고, 이에 운영 및 유지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구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문의하였고, 봉사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자들을 찾았습니다. 또한 봉사자 분의 아이디어로 일주일에 두 번, 거리에서 열리는 시



해외 선교



본당 나눔



장을 돌아다니며 식자재를 기부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에 도움을 청하여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고, 일주일에 네 번, 월, 수, 목요일과 주일에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약 200명, 주일에는 약 300명이 급식소를 방문하였고, 도시락 형태로 점심을 제작하여 음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실 급식소 운영을 시작하며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루하루 급식소를 찾는 이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음식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급식소를 찾아오는

분 중에 동전이나 음식을 조금씩이나마 기부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 신자 분들과 큰 카트 두 개를 끌고 거리 시장을 찾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자 분들이나, 상인 분들에게 급식소 상황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청하면, 조금이지만 감자, 양파 등 작은 사량이 모여 카트 두 개를 가득 채워 돌아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후원회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감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들이 모여 2020년 11월 현재까지 급식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조금 좋아져 급식소를 찾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여전히 많은 분이 공소 앞에서 따뜻한 음식을 기다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가람 스테파노 신부

스페인 마드리드 대교구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1만여 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스페인에서 발생하곤 하였지만, 지금은 약 2만여 명씩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한국으로 들어 오세요.’, ‘괜찮으세요?’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에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고,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나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손 소독제를 지니고 다니면서 마치 건조한 손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핸드크림을 꺼내어 바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면적 505,963km² [세계 50위]
인구 4,675만 4,783명
 [세계 30위]
종교 천주교 74% 이상
성인 301명
복자 2,115명
수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성인 성 야고보[대]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
관할 명의 총대주교좌 1개
구역 대교구 14개
 교구 55개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군종교구 1개

듯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늘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한국 생각을 하면 스페인 정부의 어이없는 대응과 이해할 수 없는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들이 한국과 비교가 되면서 제 속에서 분노가 미칠 듯이 끓어 오르고,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중국에서 일어난 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필요할 때, 스페인에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한 일도 있었고, 혹여 마스크를 구할 수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눈치 주던 일, 길을 걸어가다가 중국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구에게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피해가던 일,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해서 사고 싶은 물품을 한 2주 동안 쉽게 구할 수 없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쯤에 스페인 중앙 정부는 신규 감염자 수 증가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아지 산책이나 약, 식료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을 사러 간다거나 집안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을 제외하고 집 밖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면 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감염자 수가 누그러들지 않자 다시 2주간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였고, 이 기간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더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 혼자서 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사람들이 성당에 가는 것을 막지 않아서 유효하지만 불법인(?) 미사를 하곤 했습니다. 경찰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미사는 성당 문을 닫은 시간에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미사를 했지만 저는 한인 분들과는 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분들 중에서 성당 근처에 사시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미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각 단계마다 2주간씩 기간을 두고 총 3번에 걸쳐 제한들이 완화되면서 한인 분들과 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같은 수의 신자들이 오셔서 미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분들과 함께 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성당에 장례 미사가 늘지도 않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직접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당 안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인 카리타스의 활동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단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재정적 도움을 주는 일과 같은 자선 사업을 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카리타스는 운영 시간을 늘리고 여는 날짜도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그리고 성당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는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통금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경찰서에 가고 하는 일들은 영화나 뉴스에서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8월과 9월 스페인의 휴가철이 지나고, 지금 그 여파로 하루 약 2만 명이 나오는 지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통금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밤에 다니던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고, 경광등을 켜 놓은 순찰차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 정부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자기 지역 전체나 일부를 봉쇄하여 사람들의 출입과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어 놓은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페인 사회는 점차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되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성경 공부나 첫영성체 교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구 차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모임과 강의와 같은 새로운 시도도 스페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겠죠? 그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 이국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모두 무탈하시길 하느님께 청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





선교지
이야기

대만



임창재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대만 타이중 교구

찬미 예수님. 오랜만에 글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무척 힘든 한 해로 기억될 듯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힘들고 어렵기에, 이번 제 글은 어두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끝날 줄만 알았던 신종 코로나는 여전히 바로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의 영향으로 일찍 중국의 문을 닫아둔 덕분인지, 대만 국민은 지금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듯싶습니다. 그런데 매번

대만

수도 타이베이

면적 3.6만km²
[세계 136위,
남한의 약 1/3]

인구 2,381만명
[세계 57위]

종교 불교 35.3
도교 33.2%
기독교 3.9%
전통도교 또는
전통유교 10%,
기타

관할 대교구 1개

구역 교구 7개

미사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집전하다 보니, 최근에는 미사 중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며 어지러웠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어려운 외국어 미사인데, 그 덕분에 더 괴로운 이유가 추가된 것입니다. 언제쯤 코로나와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곳 신자들 마음에 다가가고 싶어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본당, 게다가 어린이들이 비교적 많다는 그 본당으로 옮겨 왔습니다. 한 본당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좀 더 큰 본당에서 대만 신부, 필리핀 신부와 함께 지내다 보니, 이러한 관계가 또 다른 숙제로 다가옵니다.

또한, 일이 몇 배로 많아지고, 시간에 쫓겨 따라가야 할 부분들이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가 싹 사라졌습니다. 마음으로 신자들을 만나고 싶었

는데 정작 허덕이며 지내는 중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 무기력하고 슬픕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우자고 했는데…. 아직도 내려놓을 것이 많고, 포기할 것이 수두룩하며, 여전히 비우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서 있는데….

똑똑똑…. 누군가 와서 저를 먼저 반가워 해 줍니다. 본당 초등부 꼬맹이들입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좁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같이 놀다 보니 어느새 맘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기분 좋은 바람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제게 행복을 전해 주는 듯싶었습니다.

나는 바보인데….

이 바보도 웃을 수 있고,

이 바보도 행복해도 되는 것 같아서….

그날은 그냥…. 마음이 좀….

혼자 그렸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잘 안 되고, 자꾸 마음만 무거워지는 모든 분을 기억하며, 그와 비슷한 과정 중에 있는 사제 하나가 이곳 대만에서 당신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고 있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분의 평화와 건강을 빕니다. 아멘.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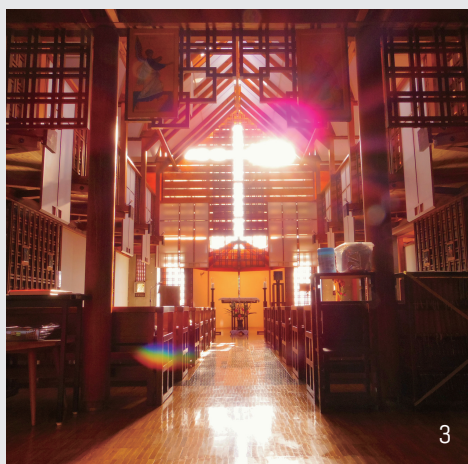


일본 요코하마 교구 시즈오카현 고텐바시의 가톨릭 고텐바(御殿場) 성당



현재 제가 선교 중인 곳은 일본 요코하마 교구 시즈오카현 고텐바시의 가톨릭 고텐바(御殿場)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두 분의 사도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1959년에 설립되어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성당입니다. 그리고 후지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태평양을 바라보는 성당이라(실제로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시골 동네 성당입니다. 본당 신자 수는 약 300명 정도이지만, 평소 주일에 미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70~80명 남짓인 작은 본당이기도 합니다.



- 1 뒷산(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성당 모습
- 2 성당 정문
- 3 아침에 중앙 문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입니다
- 4 2층에서 내려다본 성전 모습
- 5 유아방(다다미 방)
- 6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신자분이 기증한 한국의 성모님
- 7 성당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





8 성당 부설 유치원입니다

9 사제관 내부

김윤복 모세 신부

일본 요코하마 교구

저는 지난 4월 17일 시즈오카현에 있는 고텐바 성당이라는 곳으로 인
사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꺾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일본어 공부만 하고 머물고 있던 본당의 미사만 도와주
던 ‘협력 사제’로 마음 편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고텐바 성당과
스소노 성당 두 개 본당의 주임신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던 신자분들
에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하자 ‘씨티 보이’라고 말씀하셔서 ‘도
시나 시골이나 별 차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라고 생각했
는데 깊은 산골 고텐바에 오니 일본 신자분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가 한껏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때, 낯선 감정과 떨리
는 마음으로 차 한 대에 이삿짐을 싣고, 출발해서 처음 고텐바 성당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세레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에 도착했을 때, 성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당 옆에 있는 성당 부설 유치원 아이들은 낮선 아저씨가 혼자서 짐을 내리는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짐을 사제관에 다 옮기고 난 뒤에야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오셔서 고텐바 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지역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동네를 걸어 다니며 산책을 했지만,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가 시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당 밖에 나오니 성당 뒷산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4월이니 눈도 다 녹았을 터인데, 산꼭대기가 하얗고 큰 산이었습니다. 바로 성당 뒷산인 ‘후지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당 뒷산이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고텐바 성당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중지된 본당 미사는 6월부터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 정도는 특별한 일 없이 느긋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텐바 성당에는 한 개의 공소 본당(스소노 성당)과 두 개의 유치원, 그리고 3곳의 수도원과 수도원에서의 매일미사가 있었습니다. 본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도원에 계신 수녀님들은 미사 드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본당 신부로 발령받았는데도 본당에서 교우들과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역 수도원 담당 신부처럼 수도원에서만 매일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텐바는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시골이어서 코로나 확진자는 7월까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천히 본당의 이리저리한 것들에 익숙해지고 신자분들을 맞이하고,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내심 ‘코로나 덕분에….’라고 생각하며 주임신부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텐바 성당은 1959년에 파리외방선교회가 지은 성당으로, 약 20년 전에 일본식 목조 건물로 리모델링 한 성당과 사제관이 있는 본당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목조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계절의 변화를 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구조의 성당입니다. 물론 사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게 미사 하는데 저만 시원하고, 따뜻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성당 뒷산이 깨끗하게 보이는 날이면 따뜻한 햇살이 제대 앞까지 비취주는 아늑한 본당입니다.

신자들은 약 300명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아직 평일미사는 못하고 주일미사만 드리고 있지만, 매주 60명 정도 미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본당 아이들은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네 명의 학생들과 아직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기 한 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신자들이 60대 이상인 어르신들이고, 50대인 신자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 본당 청년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고령화 본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 본당에서 살아온 반년을 돌아보면, ‘양 없는 목자는 목자로서 의미가 없지만, 목자 없는 양도 양으로서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

스라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성당에서 교우들과 함께 예전처럼 자유롭게 미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꾸준히 미사를 언제 하는지 묻는 신자들이 있었고, 미사가 없을 때도 아침에 조용히 성당에 찾아와 혼자 기도하는 신자들이 꾸준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다시 하게 된 후, 성당 입구에서 체온 체크를 하고,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앉는 등의 불편함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도 그동안 참으로 미사를 하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가고 다시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 고텐바에도 벌써 2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이 일을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웃픈(기쁘게 웃고 싶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꾸짖어 주시기를(마태 8,26) 청하고 싶지만, 지금은 우리들의 힘으로 견디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도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먼 곳에서나마 기도드립니다.



이현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

칠레 이키케 교구

찬미 예수님. 칠레 이키케(Iquique)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규 신부입니다.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세계 어디나 문제의 그 바이러스 일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섭게 퍼져 많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칠레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칠레 정부는 유난히 강경책

으로 바이러스 침투에 대응했고, 아마도 한국처럼 한, 두 달 안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3월에 닫았던 성당 문은 10월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지역 봉쇄와 짧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학교와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만 집합 제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 5월이 접어들면서, 국가와 지역 감염자가 폭증하며, 칠레 정부는 점점 더 제한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강력하게 변화시켜 갔습니다.

지역별로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5월을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지역은 가장 강한 강도의 격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콰렌테나(Cuarentena)’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1단계에 접어들면 상점, 가게,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외출마저 제한됩니다. 자기 집을 나올 시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정부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인당 1주일에 2번, 최대 3시간의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미사나 회

의, 종교적 모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장례와 위급한 병자성사를 제외하곤 모든 업무를 중단한 채, 주기적으로 갖는 온라인 전례와 회의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레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라, 사실 세계적 이슈는 되지 못했습니다만, 5월부터 7월 정도까지는 인구별 확진자 수로 세계 5위 안에 들었던 가장 심각한 감염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도시에

*봉쇄 상태의 조용한 도시



칠레

수도 산티아고

면적 757,000km²
[세계 36위]

인구 1,911만 6,209명
[세계 63위]

종교 천주교 67%
개신교 16.4%
여호와의 증인 1%
기타

성인 2명

복자 2명

수호 성 야고보[대]

성인 성 프란치스코 솔라노

관할 대교구 5개, 교구 19개

구역 성직자치구 1개
군종교구 1개
대목구 1개

진입하여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을 한 채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감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통제가 심한데 어떻게 전염병이 퍼질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통제와 규율은 엄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정작 자기 일에는 규칙보단 자기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실 예로 집 앞에서 세차를 할 때 방독면을 쓰고 나와 세차를 하고 들어가지만, 가족 누군가의 생일이거나 명절 때, 혹은 연인이나 친한 친구들과 모일 때에는 아무런 경각심 없이 최소한의 방역 노력도 없이 모이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의 집단 감염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집안도 제법 됩니다.

처음엔 이 모든 통제에 불만과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통제 역시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굴하지 말고, 빨리 성당을 열고 미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중에 감염자가 생기고, 사망자도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런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를 잃었고, 또 직접 감염되어 중환자실에 다녀왔거나, 보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종신 부제님 한 분과 수녀님 한 분이 하느님 곁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물론 봉쇄 조치는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었고, 당장의 생활고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어려운 상황을 인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선제적으로 도움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먼저 도움이 닿았고, 무료 급식소

“

일상의 소중함,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무더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소소한 행복들의 가치를
되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나 자선 상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돕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교회와 본당 역시 그중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덕에 반년 이상의 봉쇄조치에도 저희 도시에서는 아직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칠레 내부에서도 특별히 더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이기에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버티기에 급급한 시간이었습니다. 10월이 되어 거의 5개월 만에 봉쇄 조치 2단계로 넘어가기까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절을 모두가 함께, 하지만 각자 단절된 곳에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2단계로 진입하며 평일에는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해졌고, 미사와 전례도 10명까지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 하에 모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주일은 외출이 불가능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 상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가끔이나마 다시 모여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질서정연하게 10명씩 신청자를 한 주 전에 미리 받아 미사를 계획하고, 봉헌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의 제한 때문에 미사 대수를 전보다 늘려야 했지만, 혼자가 아닌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현상은 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과 단절된 삶에서 오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을 겪어야만 했지만 반대로 그전에는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무더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소소한 행복들의 가치를 되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디 모두 아픔을 딛고 일어서 다시 미래를 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선교지
이야기과테
말라

김현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과테말라 산티아고 대교구

기도와 사랑의 힘

과테말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약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안에서 과테말라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였을 때는 모든 것이 통제 하에 있어서 마치 시간이 멈춰진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성당 문을 열 수도 없었고, 오랜 기간 동안 사제관에서 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미사



를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정말 큰 제약과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사제관의 작은 경당에서 성당 봉쇄로 인해 만날 수 없는 신자분들을 기억하며 매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본당 홈페이지의 라이브 방송으로 공유되는 미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연결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모두가 기도 안에서 다시금 성당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집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걸어둔 사진을 보내주었고, 부활절과 성체성혈대축일에는 꽃장식을 집 앞에 걸어두며 당신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구에서 개인 기도를 위해 성당 문을 한시적으로 개방해도 된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성체 현시를 하고, 신자들과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름이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까지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한된 인원으로 신자들과 함께 미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례도 줄 수 있고, 혼배 미사도 집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성사 생활 안에서 다시금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힘이며 은총입니다.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면적 108,889km²
[세계 105위,
한반도의 1/2]

인구 1,791만명
[세계 66위]

종교 천주교 47%
개신교 40%
기타

성인 1명

복자 15명

수호 성인 성 아고보(대)

성인

관할 대교구 2개, 교구 11개

구역 성직자치구 1개
대목구 2개

둘째는 ‘생명의 탄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수 없는 것은 바로 ‘생명의 탄생’입니다. 본당에 신자들이 미사를 드리러 오면서 간혹 출산 직전의 임산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다고 제대 앞에서 축복의 기도를 청하기도 합니다. 임산부의 배 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또 제 품에 안긴 40일 된 한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의 위대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정원에 활짝 핀 꽃들을 바라보아도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생명은 계속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깨닫지 못했던 생명의 소중함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잃는 가운데, 더 크게 느껴지는 아이러니이며 동시에 신비입니다.

셋째는 ‘기도와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지난 8월 1일 유동철 리노 신부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같은 방역 시스템은 기대할 수가 없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난생처음 겪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지에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른 신부님의 조언으로 초기부터 강력한 항생제들을 투약해서 다





행히 경증에서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약 21일간의 자가 격리 안에서 치료를 받으며, 정말 많은 분의 기도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매일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 주신 신자 가족들부터 면역력에 좋다는 생강과 계피로 만든 차를 매일 사제관 앞에 놓고 가는 형제님도 계셨습니다. 외부 접촉을 전혀 못하기에 시장에서 먹거리를 사서 가져다주는 청년들도 있었고, 먼 마을에서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한가득 직접 짜서, 자전거를 타고 가져다주는 고마운 이도 있

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본당 신자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함께 한국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된 많은 분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신부님과 신자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나눔을 한껏 받으며, 다시금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하는 저를 되돌아볼 때 다시 한번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기도의 큰 힘’과 ‘사랑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월적인 사랑의 연대’입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많이 힘든 것처럼 과테말라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 하는 가운데, 마약 문제, 어린이 납치, 인신매매, 부정부패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과테말라 건설통신부 국장의 집에서 횡령한 돈 약 200억 원이 현금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가난한 이를 돌보기 보다는 본인들의 배속을 채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제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중미에 ‘ETA’라는 허리케인이 강타하여 엘셀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북동쪽에 큰

피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연대합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매월 둘째 주 공소와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은다 해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 수에 비해 모이는 식료품의 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한국에 있는 서울대교구 해외선교 봉사국을 통해 많은 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을 넉넉한 마음으로 채워 자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뿐만 아니라, 직접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가정, 임산부, 미혼모, 독거 노인, 실직자들에게는 매주 식료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 수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에, 본당에 마련한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주중 오전 아이들의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함께 읽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선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본당 운영조차 힘든 상황인데, 한국에 계신 신자분들의 큰 도움과 기도로 현지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과테말라의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의 연대' 속에서 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기에, 더더욱 깊은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나의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나와 함께 마주치는 이들의 건강을 잘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도 과테말라에서 본당 신자들과 함께 온 세상의 평화와 모든 이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0개 국가 22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일본	이종안 사도요한
	유동철 리노		김태근 베드로
	한상현 마르첼로		김윤복 모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신광수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샤넬		박민우 알베르토
독일	신정훈 미카엘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멕시코	이승민 요셉		김성천 스테파노
	최우주 필립보	콜롬비아	양호 바오로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박형문 바오로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정성훈 프란치스코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니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강규환	강덕근	강명희	강문주	강진경	강수희	강신득	강영자	강영희	강윤복	강이순	강정숙	강정애	강정희	강지현	강진선	강춘희
강판현	강풍자	강혜란	강혜신	강경식	고문찬	고영임	고영희	고윤숙	고의영	고재영	고혜숙	고혜자	곽나영	곽민지	곽상원	곽종영
곽희경	구기은	구도석	구민영	구민희	구연모	구지순	권경애	권성희	권순주	권오경	권오영	권오중	권옥수	권완주	권유미	권익란
권혁민	권효정	길신영	김경란	김경숙	김경원	김경희	김공래	김국희	김규열	김규태	김기용	김길옥	김나은	김난옥	김남균	김남연
김덕수	김동구	김동현	김란숙	김리나	김명옥	김명진	김명춘	김명희	김묘식	김미경	김미숙	김미순	김미자	김미화	김민성	김민수
김민옥	김민주	김민준	김병국	김봉조	김봉흠	김상규	김상옥	김상태	김선태	김선희	김성년	김성민	김성호	김성희	김세형	김세인
김송태	김수남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자	김숙희	김순금	김순동	김순자	김순희	김승희	김시훈
김애생	김애정	김양자	김영선	김영진	김영애	김영은	김영조	김영희	김옥남	김옥식	김옥제	김옥희	김환식	김요안	김요자	김용기
김용혜	김용희	김원자	김원선	김원자	김원중	김원철	김월순	김유경	김유빈	김유정	김은성	김은숙	김은영	김은자	김은향	김인복
김인수	김인수	김인자	김임숙	김지원	김정옥	김재동	김정숙	김정순	김정국	김정녀	김정란	김정복	김정숙	김정애	김정오	김정용
김정희	김종철	김종필	김주경	김주현	김중자	김지민	김지애	김지연	김진영	김진옥	김진웅	김진홍	김진희	김찬영	김창윤	김채희
김청자	김춘숙	김춘화	김충희	김태순	김태윤	김평화	김학덕	김학찬	김한근	김행자	김현상	김현수	김현정	김현준	김현지	김형찬
김혜선	김혜숙	김효준	김후덕	김희령	김희숙	김희정	나범수	나석연	나윤진	나정애	남기완	남순이	남승민	남유정	남정순	남정희
남하현	노현주	노혜영	마민지	맹미숙	맹평자	문억남	문월순	문준철	문태주	민은하	민정묘	민지희	박경숙	박경진	박경희	박고운
박금순	박기식	박기철	박난규	박남주	박다른	박동우	박만기	박명숙	박명자	박미자	박민숙	박병선	박봉자	박상현	박상호	박상희
박설진	박성규	박성분	박성희	박세진	박수진	박순희	박승보	박영숙	박영신	박옥순	박옥희	박용자	박원규	박윤경	박은호	박이순
박정남	박정숙	박종국	박종숙	박주영	박지미	박지영	박진복	박진수	박진희	박찬우	박찬중	박철균	박춘지	박태련	박태언	박현용
박혜경	박혜숙	박효숙	박효진	반세록	방수희	방애자	배귀선	배근아	배수정	배영민	배현숙	백기인	백명옥	백보경	백승주	백용남
백원경	백은숙	백일순	백진희	변광국	변병원	변신호	서계임	서대관	서상록	서석순	서수용	서수진	서숙자	서순자	서안나	서영석
서영숙	서영순	서영진	서예슬	서용재	서유진	서재일	서주영	서지영	서호숙	석정미	선우선	설옥래	성락숙	소정윤	손명숙	손봉희
손영미	손지원	손효영	손희경	송금선	송기덕	송민지	송영근	송영남	송이중	송재일	송진아	송병근	송혜원	송 원	신경애	신경하
신길우	신상수	신상진	신서연	신서희	신선희	신솔아	신수경	신수연	신수정	신양선	신영순	신유리	신윤순	신재순	신정삼	신정환
신종훈	신진수	신창오	신 현	신현하	신현희	신혜옥	심수연	안경숙	안경희	안다연	안영순	안윤숙	안성숙	안성준	안영춘	안오점
안재숙	안종미	안종혁	안형숙	안효일	양기덕	양길자	양대동	양병숙	양선자	양성훈	양정훈	양정희	양하나	염미원	염인영	염주영
엄지원	여소연	연연홍	연제현	오경진	오귀애	오명석	오명순	오미선	오미희	오세성	오승자	오영선	오옥남	오인환	오정석	오정환
오정훈	오종숙	오종훈	오주현	오지철	오지현	오진선	오진은	오철환	오춘숙	오충기	오희수	오희숙	목다슬	왕은순	우승주	우주성
우형조	원경식	원규현	원영연	원인영	유경근	유기정	유명호	유미숙	유버틀	유병로	유 숙	유숙희	유승연	유승주	유연용	유윤식
유인숙	유지민	유한주	유해영	유현아	유희경	육소인	윤경애	윤도희	윤동노	윤미애	윤선화	윤소영	윤영애	윤지숙	윤진숙	윤현옥
윤홍자	윤효석	이강복	이강석	이강울	이건희	이경애	이경여	이경연	이경옥	이경혜	이경환	이교운	이광우	이구희	이규원	이규용
이금숙	이금주	이기원	이기호	이길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2여 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후원 방법 (①,②,③ 중 택일)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③ 오른쪽 페이지의 CMS 자동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후원 신청 QR

※ 전화 [02-727-2409], 팩스 [02-727-2411], 홈페이지 (<http://mission.catholic.or.kr>)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서명)



후원회 신년미사

매월 첫 목요일

후원회 월례미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잠정 중단합니다. 재개가 가능한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 발급 안내

<담당자 연락처 ☎ 02-727-2409>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021년 1월 중순 이후)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전년도 신청자는 자동 발급되오니 따로 연락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공지사항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해외선교 후원계좌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국민은행
375-01-0091-080

신한은행
140-009-624437

농협은행
386-17-002881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해외 선교 지원 사제 모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27-2424